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해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C2 EDUCATION 수시등록 가능 대상 : K-12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573-6706
COMMUNITY PAIN MEDICINE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140-21 32 Ave Flushing NY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 (Francisco) 영 희 (Julie) 엠 파이어스테이트빌딩 #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 하 탄 (212) 947-8382(B) 뉴저지 (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스테파노)지과 콜롬비아 지과대학교 졸업 엘름hurst(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자문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계,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ADSG 치과 50세 이상 초진 무료 7 Sylvan Ave. Englewood Cliffs 201-301-3909 손영준 아브라함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 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lan, LLC 150-05 노던 (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토 3:00 PM-8:0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 살롱 (구 브롱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파크 (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 / 법인 세무 보고 회사설립 사업면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Ave (718) 295-3252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마르코 2,1-12)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일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일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434-7084

Fax : (718) 405-0053



연중 제7주일

ㄹ 입당송

(시편 13(12),6)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 하리이다.

<대영광송>

ㄹ 제1독서

(나를 위하여 너의 악행들을 씻어 주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3,18-19.21-22.24-25)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¹⁸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¹⁹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²¹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²²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싫증을 내었다. ²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괴롭히고, 너의 죄악으로
나를 싫증 나게 만들었다. ²⁵ 나,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악행들을 씻어 주는 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41(40),2-3.4-5.13-14(● 5))

● 주님, 저를 고쳐 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1. 행복하여라,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이! 불행한 날에 주님이
그를 구하시리라. 주님이 보살피고 살리시니, 그는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를 원수들의 탐욕에 내주지 않으시리라. ●
2. 주님이 그를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아플 때 온갖 고통 없애
시리라. 저는 아뢰었나이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고쳐 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
3. 당신은 저를 온전토록 붙들어 주시고, 당신 앞에 영원히 세워
주시나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

ㄹ 제2독서 (예수님은 “예!”도 되시면서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는 늘 “예!”만 있을 따름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1,18-22)

형제 여러분, ¹⁸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¹⁹ 우리 곧 나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시면서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늘 “예!”
만 있을 따름입니다. ²⁰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게서 “예!”
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합니다. ²¹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군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²²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루카 4,18)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ㄹ 복 음(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2)

- 1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²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³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⁴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⁵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⁶ 율법 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⁷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 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10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11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12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채송

(시편 9,2-3)

주님, 당신의 기적들을 날날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2/19 8시	홍 명숙	한 성천	한 회자	홍 승표
11시	민 경구	이 준섭	이 회양	손 대심
2/26 8시	김 미수	함 봉국	함 경옥	김 철중
11시	이 창섭	송 호진	송 교식	이 종숙

복 사 : 이 재영 & 안 정훈 열 수연 & 이크리스티나
 봉헌자 : 장운화&추성태 가족 다음주 : 김만석&우상영 가족
 헌금봉사 : 황금궁전 Pr 다음주 : 다윗의 탑 Pr
 운전봉사 : 한 광희 다음주 : 민 경구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1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 (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김논나[민석](생미사) : 김요셉[만석]가족, 황금궁전 Pr,
 신베드로[대철] 가족봉헌

자녀를 위한(생미사) : 엄모니카 봉헌

김루시아(연미사) : 평화의 모후 Pr, 이선민 봉헌

차안드레아[상재](연미사) : 차안나[금순] 가족봉헌

한복임(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봉헌

한성희(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봉헌

권마리아[채순](연미사) : 이젤뚜루다[옥순], 조요한[용국] 봉헌

박춘근, 이마틸다[분조](연미사) : 이젤뚜루다[옥순] 봉헌

박암브로시오 증조부(연미사) : 이젤뚜루다[옥순] 봉헌

연령희 봉헌(연미사) : 최바오로[홍선], 진자아리알, 장동선

나세실리아, 권마리아[채순], 김루시아[정자]

이바오로[경년], 허스테파노[문호], 정일신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성가

입당 :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성가 68)

봉헌 : 제물 드리니 (성가 342)

성제 : 믿음 소망 사랑 (성가 176)

파견 : 찬양하라 (성가 4)



교회 소식

(1) 사순절 시작

이번 주 수요일(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십일 동안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생활을 고쳐 부활 할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재의 수요일(22일) : 단식을 하고 미사에 참석하여 재를 받도록 합니다.(저녁 8시30분 미사)

※ 단식과 금육 : 매주 금요일 금육을 하고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단식을 해야 합니다

※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저녁8시30분에 십자가의 길이 성당에서 있습니다.

※ 피정에 참여 : 3월5일(월)-6일(화) 저녁8시30분부터 10시까지 사순절 특별피정이 있습니다.

※ 판공성사 : 3월28일(수) 저녁7시-10시까지 합동으로 여러 신부님들께서 부활판공성사를 드립니다.

(2) 중, 고등부 스키클럽 소식

중, 고등부 신앙캠프(스키츄립)가 오늘19일(주일)-20일(월) 이틀간 있습니다. (I-80 Exit 299 Tannersville Camelback Ski area) 버스로 아침 8시50분 출발, 월요일 저녁 7시 도착예정입니다.

(3) 성모회 피정소식

성모 회 에서 주관하는 일일피정이 26일(주일)에 “**잘난 여자**”란 주제로 메리놀 피정의집에서 있습니다. 점식식사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매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신청은 성모회장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20)

(4) 2012년 교구청(Stewardship Appeal)

2012년 교구청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당 뒷편 교구봉투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의 한달 분)

(5) 성 정 마르꼬회 총회

성 정 마르꼬회 제22차 정기총회가 26일(주일) 11시미사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본당 모임

- 중부웨체스터 구역회가 오늘19일(주일) 조일제(요셉) 형제님 (914) 944-4067 댁에서 저녁6시에 있습니다.
- 동부 브롱스 구역회가 오늘19일(주일) 엄희자(모니카) 자매님 (646) 247-4455 댁에서 오후2시에 있습니다.
- 서부브롱스 맨하탄 구역회가 26일(주일) 이상식(바오로) 형제님 (347) 908-3824 댁에서 오후3시30분에 있습니다.
- 연명회 모임이 26일(주일) 12시30분 센타 102호실에서 있습니다.
- 신자주소록 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 되신 분이나 빠지신 분은 본당 뒤편에 있는 용지에 적어주시면 새 주소록에 실어 드립니다.

* 이번달(2월) 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뉴저지 구역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1,945.00

성지순례 헌금 : \$155.00

교 무 금 : \$2,640.00

교육헌금 : \$3,822.00

윤기운(3-4) 한경수(2) 정철수(1-2) 이덕성(1-2) 박진혁(1)
함봉국(1-2) 박민흠(1-2) 이경태(1-2) 이상식(2) 김원자(3-4)
유인선(1-2) 김경심(1) 김창규(1-6) 김재찬(1-2) 박영숙(2)
김은경(1-2) 김중구(1-3) 강순연(2) 주인숙(1-2) 엄희자(1-6)

교구청 기금 \$760.00

누계 : \$4,310.00

정철수 함봉국 박민흠 김창규 김중철 강순연 엄희자
박춘자 주인숙 이상식 이덕성

사순절의 화두

어느새 사순절이 또 돌아왔다. 세월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사순절이 이렇게 금방 또 돌아오다니...사순절이 봄을 기다리는 지루한 늦겨울에 있어서 인지, 아니면 속죄의 계절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계절이다. 사순절은 회개와 보속을 하는 시기이고, 아울러 단식과, 기도 그리고 자선을 해야 된다고 한다.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막연하다. 그래서 사순절의 화두가 단식과 기도, 그리고 자선이다. 먼저 단식을 생각해보면 나에게겐 참 어렵게 생각된다. 마귀의 유혹인지 제의 수요일에는 물론 단식을 하려는 생각만 해도 배가 고파지고, 먹을 것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40일 동안 어떻게 단식을 하겠는가? 그런데 나의 한 친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한다. 매주 목요일은 물론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 습관이 되니 몸이 편안하다고 한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단식을 하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못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나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단식을 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습관이 되면 영혼의 건강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터이니 그야말로 뽕 먹고, 알 먹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 본당신부님께서 아침저녁 기도를 자주 강조하시는데 사순절에는 그 이상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의 기도 주제는 그저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인데 사순절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주위를 돌아보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그리고 자선은? 자선이라고 하면 주로 물질적인 도움을 생각하는 데 그 보다도 그 누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위를 돌아다보면 그 어떤 물질보다도 인간의 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얼마 전에 만났던 70을 바라보는 홀로 사시는 노인 한분이 이런 말을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나? 하면서 길고, 지루한 하루를 보낼 걱정을 한다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 마음대로 나다닐 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전화 한통 걸어주는 사람 없고...그러면서 하는 말이 함께 있으면 싸움만 하게 되는 미운 사람이라도 하나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미운사람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말이 몹시 서글프게 들렸다. 무엇을 주는것만이 자선이 아니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주고, 위로가 되어주는것도 큰 자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단식, 기도, 그리고 자선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수도 있을것 같다.

우 몽은